주말스페셜 | '리니지2M' '달빛조각사' 'V4'…하반기 모바일게임 빅3 격돌

리니지 주역들의 '가을 대전'…누가 웃을까

〈PC 온라인게임〉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거장들이 만든 모바일 MMORPG가 가을 게임시장에서 격돌한다.

주인공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카카오게임즈의 '달빛조각사', 그리고 넥슨의 'V4'다. 이들 세 게임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 PC MMORPG 흥행을 이끌었던 '리니지' 시리즈의 주역들이 만든 모바일 MMORPG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반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빅3'로 꼽히는 신작들이 모바일 MMORPG의 새 역사를 쓸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택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송재경 "원작+레트로 감성 살려"
박용현 "게임 본연의 가치에 집중"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거장들이 만든 모바일 MMORPG가 가을 게임시장을 후끈 달구고 있다. '리니지2M'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달빛조각사'와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 'V4'와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윗쪽부터).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리니지2M'

리니지2M은 PC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이다. 또한 엔씨소프트의 두 번째 M 타이틀이다. 특히 PC게임을 모바일로 옮긴 '리니지M'과 달리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한 게임이다. 리니지 시리즈를 탄생시킨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최고창의력책임자(COO)로 제작에 참여했다.

김 대표는 리니지2M에 대해 "현존하는 모바일게임의 한계를 넘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게임이다"고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게임은 4K 그래픽과 현실 같은 충돌처리 기술, 오픈 월드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심리스 로딩, 1만 명 이상 유저가 하나의 채널에서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원 채널 오픈월드가 특징이다. 이미 사전예약 32일 만에 500만 명을 끌어 모으며 모바일게임 시장 1위인 리니지M의 기록을 넘어섰다. 15일부터는 사전 캐릭터 생성도 시작한다. 4분기 내 출시 예정이다.

● 카카오게임즈 '달빛조각사'

1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달빛조각사'는 대작과 거장의 만남으로 눈길을 끈다.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530만을 자랑하는 남희성 작가의 동명 판타지 소설 IP로 스타 개발자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제작했다.

송재경 대표는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로 국내 MMORPG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다.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도 제작했다. 송 대표는 '달빛조각사'에 대해 "20년 전 처음 MMORPG를 제작하던 마음으로 개발했다"며 "레트로한 감성을 살렸고, 원작처럼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리니지 서비스에 참여했던 김민수 PD도 힘을 보탰다.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과 아기자기한 캐릭터, 다양한 전투 및 생활 콘텐츠, 다른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직업 '조각사' 등이 특징이다. 게임은 출시 전 320만 명이 넘는 사전 예약자를 모으며 흥행 청신호를 켰다.

●넥슨 'V4'

11월 7일 출시를 앞 둔 넥슨의 'V4'는 '히트'와 '오버히트'를 연이어 히트시킨 넷게임즈의 신작이다. 유명 IP를 기반으로 한 다른 경쟁작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IP란 점이 눈길을 끈다. 개발을 이끈 넷게임즈의 수장 박용현 대표는 리니지2 총괄 프로듀서 출신이다. 이후 블루홀(현 크래프톤)의 '테라' 개발도 주도했다.

박 대표는 V4에 대해 "10여 년 만에 PC온라인 시절 주력했던 MMORPG를 모바일로 선보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V4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게임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개발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V4는 모바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터 서버 월드'와 전략 전투 지휘가 가능한 '커맨더 모드', 자율 경제 시스템, 하이엔드 그래픽으로 구현한 오픈필드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재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며, 10일 서버·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도 시작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U+, 5G 기반 일반도로 자율주행 공개 시연

LG유플러스는 1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5G-V2X(차량·사물간 통신) 기반 일반도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공개 시연했다. 5G-V2X는 이동통신 기반 차량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사물(다른 차량·모바일 기기·교통 인프라)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이다. 시연 승용차는 제네시스 G80을 사용했으며 LG전자 5G-V2X 통신단말과 LG유플러스의 5G 통신망 및 자율협력주행 플랫폼을 활용했다.

자율주행차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일대 일반도로 2.5km를 15분 간 주행했다. 시연은 원격 호출과 선행차량 영상 전송, 무단횡단 보행자 감지, 긴급차량 접근 알림, 비가시영역 '지오펜싱'(지리적 울타리)' 대응, 다이나믹 맵 기반 사고현장 회피 등으로 진행했다. 김명근 기자

LG유플러스 및 LG전자 관계자들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5G-V2X 자율협력주행을 공개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트위터 유저 관심이 실시간 트렌드가 된다

특별기고
최향숙 트위터 코리아 이사

올 상반기 트위터 게임 대화량 톱10

올 상반기, 트위터에서 게임 관련 대화량이 가장 많았던 국가로 일본, 미국에 이어 한국이 뽑혔다. 한국의 트위터 유저들은 트위터에서 게임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게임 출시 소식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캐릭터를 분석하고, 게임을 즐기면서 얻는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며 적극적인 평가자가 된다. 또한 개별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한다.

트위터 한국 유저들이 올 상반기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게임 톱10은 무엇이었을까.

1위 게임은 '파판'으로도 불리는 '파이널판타지'. 1987년 출시된 게임으로, 누적 1억 4천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기록한 게임계의 명작이다. 전세계 RPG 시리즈 중 2번째로 많이 팔린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15편이라는 본편 외에도 다수의 확장판, 외전, 리메이크 판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2016년 11월 파이널판타지XV가 소개되었다. 초기작부터 영화를 보는 듯한 환상적인 그래픽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파이널판타지는 해마다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임으로 꼽힌다.

2위는 트위터에서 '앙스타'로 불리는 앙상블 스타즈다. 아이돌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표작으로, 2015년 일본에서 출시 후 한국에도 소개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남성 아이돌을 육성하는 '유메노사키 학원'을 배경으로, 재능 넘치는 학생을 프로듀스하는 게임이다. 트위터에서는 '앙스타'로 할로윈 팀 코스프레 멤버를 모집하기도 하고, 그림에 재능 있는 트위터 유저들이 개별 이벤트로 '앙스타' 캐릭터를 그려주며 높은 호응을 얻기도 한다.

3위는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로 유명한 블리자드가 개발하고 배급했다. 게임 자체도 인기 있지만, 게임 속 영웅들의 스토리나 디테일이 흥미롭다. 작년, 트위터 글로벌 게임 순위에서 9위에 오른 바 있다.

4위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다. 2015년 일본에서 시작된 후, 2017년 한국에 론칭돼 큰 인기를 끈 소셜 RPG게임인 '페인트 그랜드 오더'는 '페그오' 또는 '한그오'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자주 랭크될 만큼 현재도 인기 있는 게임이다. 애니메이션 IP 기반으로, 매년 수많은 게임이 쏟아지는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주기적으로 앱스토어 순위 1위를 찍는 초대형 인기작이다.

5위는 대표적인 MMORPG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 20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전 세계 9개국 이상에서 13억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이 게임은 2D로 된 친근하고 귀여운 그래픽이 특징이다. 덕분에 애니메이션은 물론 출판물을 비롯, 다양한 캐릭터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6위엔 2017년 출시 이후 짧은 시간 내 전 세계 게이머들을 열광케 배틀그라운드가, 7위엔 EA의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가 각각 차지했다. 8위는 2017년 출시돼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국 XD 글로벌의 '소녀전선'이다. 9위는 KOG가 개발하고 넥슨이 퍼블리싱한 대표적인 온라인 RPG 게임 '엘소드'가, 10위엔 2004년 처음 PC 게임으로 등장한 뒤 10년 이상 장수하면서 모바일 버전으로도 만들어진 넥슨의 대표적 MMORPG 게임 '마비노기'가 랭크됐다.

지금까지 소개된 게임 톱10은 트위터의 상반기 게임 관련 트윗만을 분석한 결과로, 연말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게임이 순위에 오르내릴지 궁금해진다.

최향숙 이사
▲트위터코리아 전략광고 및 사업개발 담당 ▲삼성전자(2008~2015)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 유럽 PM(2006~2008) ▲애스톤대(영국) e비즈니스 석사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0일

코스피지수	2028.15	▼	-18.10
코스닥지수	634.73	▼	-0.68
日 닛케이 지수	2만1551.98	▲	+95.60
中 상하이 종합	2947.71	▲	+22.8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26	▲	+0.03
환율 (원·달러)	1195.50	▼	-1.00
국내금값 (원/그램 g)	5만7956.30	▲	+374.51

LG전자, 'V50S' 11일 국내 출시

LG전자는 11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전략 스마트폰 'V50S 씽큐'(사진)를 국내 출시한다. 출고가는 119만9000원이다. 색상은 오로라블랙이다. LG전자는 전용 액세서리 듀얼 스크린과 투명 젤리케이스를 V50S 제품 패키지에 포함해 구매자들에게 기본 제공한다. V50S를 구매하고 간편결제시스템 'LG 페이'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온라인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총 6대의 LG 홈브루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한편 LG전자는 국내 출시 후 V50S를 글로벌 전략 시장에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핀에어, 日하네다 신규 취항

핀란드 국영항공 핀에어(한국지사장 김동환)는 2020년 하계 시즌부터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신규 취항한다. 나리타 공항에 이어 도쿄의 두 번째 취항이다. 하네다 공항 예상 비행 일정은 저녁으로 낮 시간대인 나리타 공항과 차이가 있다. 핀에어는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넓혀 이번 도쿄 노선 외에 11월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신규 취항, 2020년 부산-헬싱키 신규 취항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편 예약은 핀에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파라다이스 부산, '가을 미식' 패키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부산은 가을을 맞이해 미식 호캉스족을 위한 '가을 미식' 패키지를 진행한다. 10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한다. 가을 여행을 준비하는 호캉스족을 위한 파인다이닝 풀코스 디너와 가을 야외 온천 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됐다. 중식당 '남풍'의 코스요리 혹은 유러피안 퀴진 레스토랑 '닉스그릴'의 자연주의 컨셉트 앙상블 디너 2인, 야외 온천 오션 스파 씨메르, 오션뷰 객실, 파라다이스 키즈 빌리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격은 30만 원(세금, 봉사료 별도)부터 시작한다. 김재범 기자

※ 교육·퍼즐은 15면에 옮겨 싣습니다.